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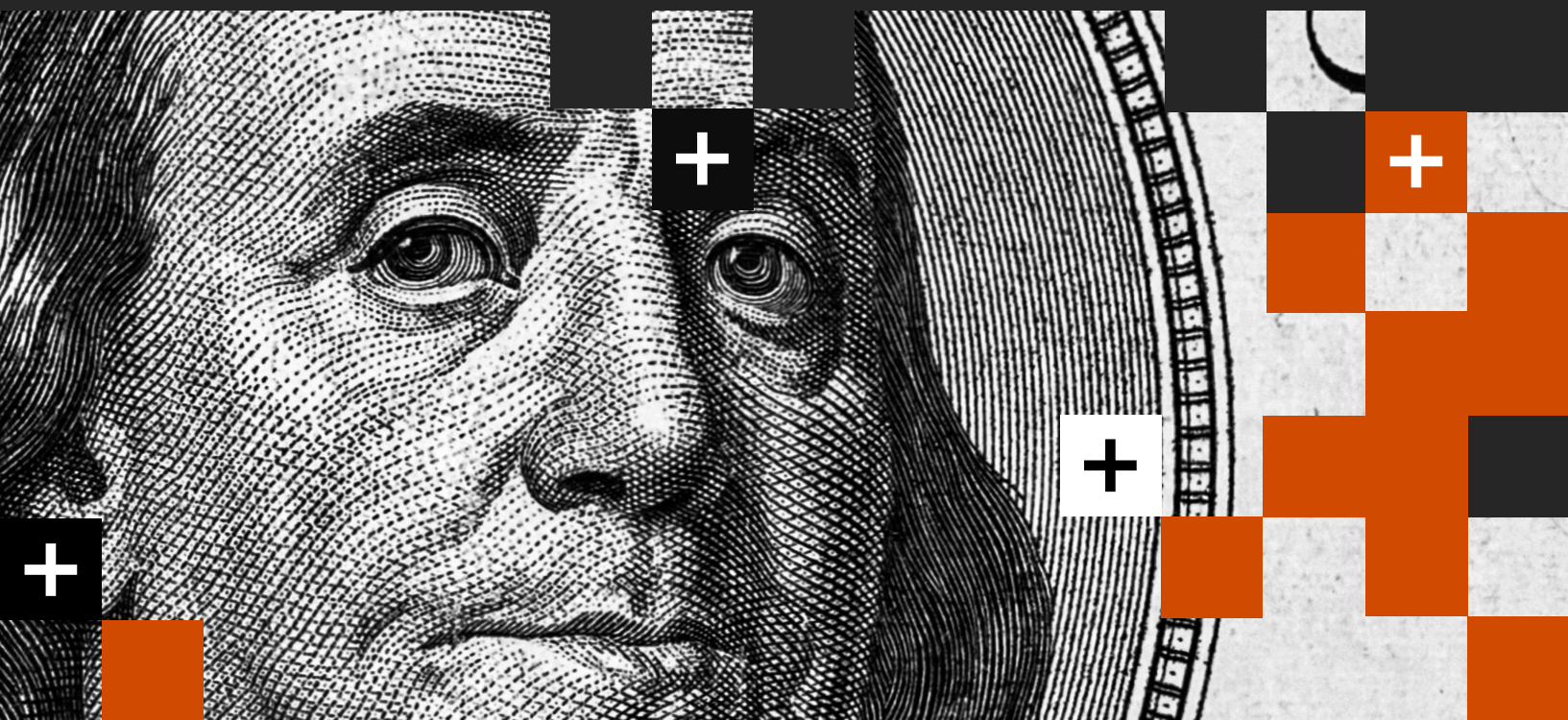
Issue

Brief

글로벌 경제 환경 및 리스크 점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5 내용 중심

삼일PwC경영연구원 | February 2025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25년 1월 20일~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5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포럼 개최 첫날인 1월 20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며 온라인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무역 관세 및 친환경 후퇴 정책, 지구촌 분쟁 종식을 위한 행보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급박한 정세 및 현안 등으로 글로벌 정재계는 함께 분주해지며 세계경제포럼의 주목도가 다소 낮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정치, 경제, 기업, 학계의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당면한 과제에 대한 논의의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업'으로, AI, 양자역학 등 급변하는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충돌 및 무역 분쟁 등으로 격화되는 분열의 시대가 공존하는 전세계가 안고 있는 리스크와 영향, 그리고 해법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전망 및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당해 포럼 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핵심 보고서로서 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1) 글로벌 경제 전망 2025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미국 정책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분열 심화

경제 성장 차별화	미국 정책 영향력 확대	글로벌 분열 심화	무역 갈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지역별 차별화미국 성장 견조 & 인도 고성장 vs 유럽, 중국 성장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력 강화경제 및 글로벌 관계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다자주의 무역 후퇴소비자·기업 비용,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장기 성장을 둔화 우려기업 대응: 공급망 재조정, 기업운영 지역화, 핵심시장 집중, 고위험 시장 철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역 규제 강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무역의 지역화 강화 → 지정학적으로 관련된 국가와의 무역 증가

(2) 글로벌 리스크 2025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약화된 모습

- **현재 및 단기 전망: 사회 및 지정학적 리스크 우세**
 - 전 세계적 분열이 지정학, 경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무력 충돌, 무역 분쟁, AI 발전과 폐해에 주목함
- **장기 전망: 환경 리스크 우세**
 -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즉 환경 및 사회 관련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

현재, 단기(2년), 장기(10년) 기준 글로벌 위기 요인 순위

현재 (2025년)		단기 (~2027년)		장기 (~2035년)	
1위	국가 간 무력 충돌	1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1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3위	지리경제적 대립	3위	국가 간 무력 충돌	3위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4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4위	사회적 양극화	4위	자연 자원 부족
5위	사회적 양극화	5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5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6위	경기 침체	6위	오염	6위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7위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7위	불평등	7위	불평등
8위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	8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	8위	사회적 양극화
9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9위	지리경제적 대립	9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10위	불평등	10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10위	오염

경제 리스크 환경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사회 리스크 기술 리스크

(3) 시사점 및 제언

글로벌 주요 위기 요인과 대응 방안 제언

전략적 무역관계 다각화와 공급망 재구축	AI 투자 및 지원 확대 - 책임있는 AI 강화 병행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개편	초고령화, 양극화 대비 인력 관리 강화
-----------------------	-------------------------------	------------------	-----------------------

목차

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1. 세계경제포럼 개요	04
2.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보고서	06

II. 글로벌 경제 전망 2025

1. 글로벌 경제 전망 2025	07
-------------------	----

III. 글로벌 리스크 2025

1. 글로벌 리스크 2025 요약	09
2. 글로벌 리스크 현황	11
3. 글로벌 리스크 단기 전망(~2027년)	12
4. 글로벌 리스크 장기 전망(~2035년)	14
5. 부문별 주요 리스크 분석	
5-1. 단기: 지정학, 경제, 기술·양극화	16
5-2. 장기: 환경, 생명공학, 초고령화	

IV. 시사점 및 제언

1. 세계경제포럼 개요

(1) 세계경제포럼(WEF) 개요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 **유래와 역사**: 1971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한 유럽 기업가 비공식 모임에서 시작 → 1987년 모임의 명칭을 세계경제포럼(WEF)으로 변경 → 2015년 스위스 정부로부터 국제기구 지위 획득
- **장소 및 기간**: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차총회(다보스 포럼) 개최
- **규모**: 전세계 130개국 이상의 정부, 국제기구, 파트너 기업 등에 속한 각계 리더들 참석
- **주제**: 전세계 경제, 정치, 사회적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과 미래 비전 제시

(2) WEF 2025 개요

■ 세계경제포럼 2025

- **개요**: 제 55회 연차총회, 2025년 1월 20일~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 **주제**: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
- **5대 핵심 의제**
 - **신뢰 재건(Rebuilding Trust)**: 글로벌 강대국의 경쟁 심화, 분열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적 협력 강화
 - **성장 기회 재구상(Reimagining Growth)**: 미미한 경제 성장 전망 하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과 기회 탐색
 - **사람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공정한 성장을 위한 신흥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재교육, 일자리 창출
 - **지능형 시대의 산업(Industries in the Intelligent Age)**: 급격한 기술 변화와 새로운 산업 역학 속에서 혁신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절
 - **지구 환경 보호(Safeguarding the Planet)**: 기후 변화 관련 극한 기상 현상과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의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보호,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주요 참여 인사**
 - 정치 인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온라인 연사), 덩쉐샹 중국 부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 국제기구/기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등
 - 기업: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 국내기업인: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세계경제포럼 2025 주요 참여 인사



Source: WEF,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1. 세계경제포럼 개요

(3) 세계경제포럼 주제와 참여 인사 변화

- **주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전망을 반영하는 주제 제시
- **최근 10년의 주제 변화:** '4차 산업혁명' → COVID-19와 '위대한 리셋' → 분열된 세계, 지능형 시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 **4차 산업혁명**
 - WEF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이 최초로 주창한 개념. WEF 2016의 주제로 당대 핵심 키워드로 부상
 - WEF 2019 주제로도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을 논의
 - **위대한 리셋:** COVID-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를 세계 경제·사회 등 전부문을 혁신하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
 - 3가지 관점(공정한 시장, 평등 및 지속가능성, 공동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해 추진 가능
 - **분열된 세계 속에서 협력과 신뢰 강조 & 지능형 시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 중동분쟁, 러-우전쟁 등 세계 정세 불안,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분열된 세계 속에서 신뢰 재건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강조
 -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
- **참여 인사:** 당해년도 주제와 연관된 인사들의 참여, 연설도 주제에 따라 변화

최근 세계경제포럼 주제 및 주요 참여 인사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16 (46회)	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2019 (49회)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 (Globalization 4.0: Shaping a Global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2020 (50회)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021 (51회)	위대한 리셋 (The Great Re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2022 (52회)	전환점에 선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History at a Turning Point: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스테판 방셀 모데나 CEO
2023 (53회)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2024 (54회)	신뢰 재건 (Rebuilding Tr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창 중국 총리 안토니 볼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2025 (55회)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 (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딩쉐샹 중국 부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Source: WEF,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보고서

(1) WEF 연차회의 관련 주요 보고서

- WEF는 매년 포럼 개최에 앞서 전망보고서를 발표
 - 대표적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전망조사와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 글로벌 경제와 주요 인사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
- 글로벌 경제 전망 조사(Chief Economists Outlook)
 - 당해 경제 전망 및 관련 이슈에 대해 각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
-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The Global Risks Report)
 - 기업, 정치, 학계, 시민사회 등 900명여명의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GRPS, Global Risk Perception Survey)¹⁾ 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현재(당해 년도), 단기(향후 2년), 장기(향후 10년)의 글로벌 위험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 상기 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WEF의 주요 의제로 논의됨

¹⁾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GRPS, Global Risk Perception Survey): WEF에서 매년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재 및 장·단기 기준 글로벌 리스크 관련 인식 조사

세계 경제포럼 논의 주제와 핵심보고서의 내용 요약

WEF 2025 Agenda	글로벌 경제전망조사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p>주제: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p> <p>핵심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재건(Rebuilding Trust) : 글로벌 강대국의 경쟁 심화, 분열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적 협력 강화 • 성장 기회 재구상(Reimagining Growth): 미미한 경제 성장 전망 하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과 기회 탐색 • 사람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공정한 성장을 위한 신형 분야 인력 개발, 재교육, 일자리 창출 • 지능형 시대의 산업(Industries in the Intelligent Age): 급격한 기술 변화와 새로운 산업 역학 속에서 혁신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절 • 지구 환경 보호(Safeguarding the Planet): 기후 변화 관련 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 보호, 친환경 에너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년비 둔화 전망: <u>미국, 남아시아(인도) 호조 Vs. 유럽, 중국 둔화</u> • 트럼프 정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글로벌 경제 성장 및 무역구조, 밸류 체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 존재 •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예상 • 다자주의 무역질서 후퇴 및 글로벌 무역의 지역화 전망 • 무역구조 변화, 분열에 대한 기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재구조화 - 사업운영의 지역화 - 핵심지역 집중 -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 	<p>현재(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글로벌 위기 요인 1위는 국가 간 무력 충돌, 2위는 극한 기상 현상, 4위는 허위정보와 오정보 • 전년 대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리스크 심각도는 악화 <p>단기(2년, ~202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 분열이 지정학, 경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무력 충돌, 무역 분쟁, AI 발전과 폐해에 주목함 <p>장기(10년, ~2035년)</p> <p>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즉 환경 및 사회 관련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p>

Source: WEF,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1. 글로벌 경제 전망 2025

(1) Chief Economists Outlook 2025

■ 보고서 개요

-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기 앞서 각국의 대표 경제학자 5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경제 전망 조사
- 주요 내용: 2025년의 글로벌·지역별 경제 전망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전망

■ 주요 내용

1. 글로벌 경제성장: 성장을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차별화

- ① 전세계: '25년 경제 성장률은 '24년 대비 약화 전망(응답자 56%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② 지역별 성장: 미국 경제 성장을 견고,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성장률 호조 vs 유럽과 중국의 성장을 둔화 전망
- ③ 인플레이션: 이전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전망
- ④ 통화정책 & 재정정책: 완화적 기조 지속

2. 美 트럼프 정부에 집중된 시선

①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단기적인 혼란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 인식
- 무역, 이민, 규제 완화, 재정 정책, 산업 정책 및 외교 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선거 공약 대비 약화되어 실시될 전망

②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영향

- 조세정책 변화(법인세 인하 및 관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 불법 이민자 추방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 및 임금 가격 상승 전망
- 고용 호조, 기업 친화 정책으로 주식 시장 상승
- 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공공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상존
- 트럼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3. 글로벌 분열, 다자주의 협력 후퇴

① 무역 전쟁 격화: 서비스 거래보다는 상품 거래 부문에서 무역 분쟁 격화 전망

② 글로벌 경제 분열 심화: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글로벌 분열 심화 전망

- 상품 거래, 노동의 이동성에서 분열 발생(이민 제약), 기술 및 데이터 이전도 제한적일 전망(지식 기술의 글로벌 흐름 제한)

③ 글로벌 분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잠재적 비용이 높은 부문에서 변화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 주요 대응방안으로,

- 공급망 재구조화(Restructuring of Supply Chains) 91%
- 사업운영의 지역화(Regionalization of Operations) 90%
- 핵심지역에 집중(Increased Focus on Activity in Core Markets) 79%
-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Exiting High Risk Markets) 76%

4. 무역 전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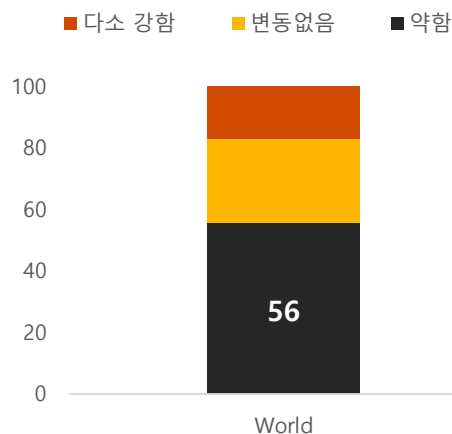
- ① 보호무역 강화 및 무역 갈등 심화 예상. 이로 인해 전반적 소비자 물가 상승, 다자주의 무역 질서 후퇴, 글로벌 무역 분열 확대
- ② 무역의 지역화 확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관련 있는 국가와의 무역이 보다 강화될 전망

1. 글로벌 경제 전망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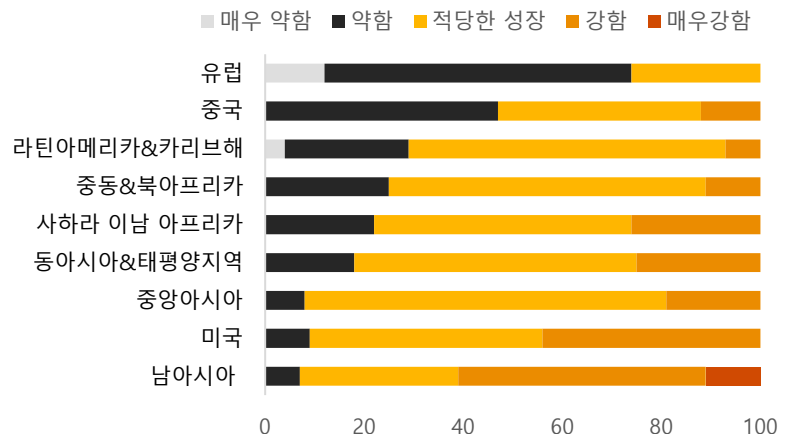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미국 정책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분열 심화

경제 성장 차별화	미국 정책 영향력 확대	글로벌 분열 심화	무역 갈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지역별 차별화 미국 성장 견조 & 인도 고성장 vs 유럽, 중국 성장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력 강화 경제 및 글로벌 관계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다자주의 무역 후퇴 소비자·기업 비용,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장기 성장률 둔화 우려 기업 대응: 공급망 재조정, 기업운영 지역화, 핵심시장 집중, 고위험 시장 철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규제 강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 무역의 지역화 강화 → 지정학적으로 관련된 국가와의 무역 증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응답자수 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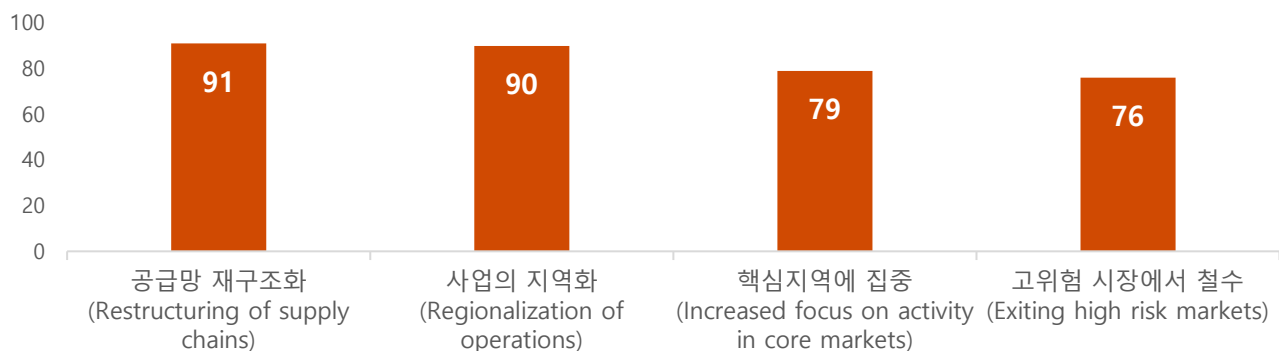
글로벌 & 지역별 경제 성장 전망 (응답자수 비율 : %)



Source: Chief Economists Outlook 2025, 삼일PwC경영연구원

무역 전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

글로벌 무역 분열에 대한 기업들 대응 방안
(“그럴 것이다” & “매우 그럴 것이다” 라고 응답한 설문자수 비중(%))



Source: Chief Economists Outlook 2025, 삼일PwC경영연구원

1. 글로벌 리스크 2025 요약

(1) 세계경제포럼과 The Global Risks Report

■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의 내용과 의미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GRPS)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WEF의 대표보고서 중의 하나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WEF의 주요 주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함
- 리스크 기간 단위: **현재**, **단기(향후 2년)**, **장기(향후 10년)**의 3개 구간으로 나뉨
- 리스크 분야: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5개 분야로 구분

(2) The Global Risk Report 2025(20th Edition)

■ The Global Risk Report 2025(20th Edition)의 주요 내용 요약

- 현재(25년), 단기(~27년), 장기(~35년) 기준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부문의 33가지 리스크 비교·분석·전망
- 현재(25년), 단기(~27년) 위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적 긴장 고조, 기술 발전 및 양극화를 중심으로 논의
- 장기(~35년) 위험: 환경 오염, 생명공학 기술 통제력 상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위기에 주목

The Global Risk Report 2025 요약

구분	단기(~2027년)	장기(~2035년)
전망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52%가 글로벌 단기 전망 불안정(Unsettled)할 것으로 예상, 31%는 혼란(Turbulent), 5%는 격변(Stormy)의 시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장기 전망은 더 악화, 응답자의 62%가 격변(Stormy) 또는 혼란(Turbulent)의 시기 예상
	* 평온(Calm)-안정(Stable)-불안정(Unsettled)-혼란(Turbulent)-격변(Stormy)의 순서로 낙관에서 비관적 전망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우려 감소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험은 10위권 밖에 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장기 리스크 10위권 내에 불포함 •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죄 15위('24년 31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 기상 현상(2위) • 환경 오염 6위('24년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10개중 5개가 환경 위험 • 극한 기상 현상, 생물 다양성 상실과 생태계 붕괴
지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무력 충돌 3위('24년 5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위험 요소로서 단기 위험 대비 약화 •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작년 15위에서 12위로 상승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우려되는 부문: 상위 10위권 중 4개 해당 • 사회적 양극화 4위, 불평등 7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이 8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이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부, 소득)은 7위, 사회적 양극화는 8위 •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 위기와 장기 요양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예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에서 파생된 허위 정보와 오정보가 2년 연속으로 단기 중대 위험 1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리스크 10위권 내에서 5위, 6위, 9위 포함 • 허위정보와 오정보, AI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전쟁 위험이 부각
주요 리스크 이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학적 침체(Geopolitical Recession) 2. 경제적 긴장 고조(Supercharged Economic Tensions) 3. 기술과 양극화(Technology and Polariz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오염(Pollution at a Crossroads) 2. 생명공학 기술 통제력 상실(Losing Control of Biotech) 3. 초고령화 사회(Super-ageing Societies)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1. 글로벌 리스크 2025 요약

(3) 한눈에 보는 현재·단기·장기 글로벌 리스크 요인

■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약화된 모습

- **단기 전망:** 전세계적 분열이 지정학, 경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무력 충돌, 무역 분쟁, AI 발전과 폐해에 주목함
- **장기 전망:**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즉 환경 및 사회 관련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

현재, 단기(2년), 장기(10년) 기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순위

현재(2025년)		단기(~2027년)		장기(~2035년)	
1위	국가 간 무력 충돌	1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1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3위	지리경제적 대립	3위	국가 간 무력 충돌	3위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4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4위	사회적 양극화	4위	자연 자원 부족
5위	사회적 양극화	5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5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6위	경기 침체	6위	오염	6위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7위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7위	불평등	7위	불평등
8위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	8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	8위	사회적 양극화
9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9위	지리경제적 대립	9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10위	불평등	10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10위	오염
11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	11위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죄	11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
12위	자연 자원 부족	12위	전략적 자산 집중	12위	국가 간 무력 충돌
13위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13위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	13위	전략적 자산 집중
14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14위	온라인 피해	14위	검열 및 감시
15위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죄	15위	부채	15위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죄
16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16위	검열 및 감시	16위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
17위	전략적 자산 집중	17위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17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18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공급망 붕괴	18위	자연 자원 부족	18위	지리경제적 대립
19위	자산 버블 붕괴	19위	경기 침체	19위	생화학 및 핵 위험
20위	건강과 웰빙 감소	20위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보호 부족	20위	부채
21위	생화학 및 핵 위험	21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21위	전염병
22위	부채	22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공급망 붕괴	22위	온라인 피해
23위	중대 인프라의 붕괴	23위	생화학 및 핵 위험	23위	첨단 기술의 부정적 결과
24위	전염병	24위	국가 간 폭력	24위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보호 부족
25위	국가 간 폭력	25위	자산 버블 붕괴	25위	중대 인프라의 붕괴
26위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보호 부족	26위	중대 인프라의 붕괴	26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공급망 붕괴
27위	인플레이션	27위	전염병	27위	경기 침체
28위	오염	28위	인력 부족	28위	건강과 웰빙 감소
29위	온라인 피해	29위	인플레이션	29위	국가 간 폭력
30위	검열 및 감시	30위	건강과 웰빙 감소	30위	자산 버블 붕괴
31위	기후 무관 자연재해	31위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31위	인력 부족
32위	인력 부족	32위	기후 무관 자연재해	32위	인플레이션
33위	첨단 기술의 부정적 결과	33위	첨단 기술의 부정적 결과	33위	기후 무관 자연재해

■ 경제 리스크
 ■ 환경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 사회 리스크
 ■ 기술 리스크

Source: WEF,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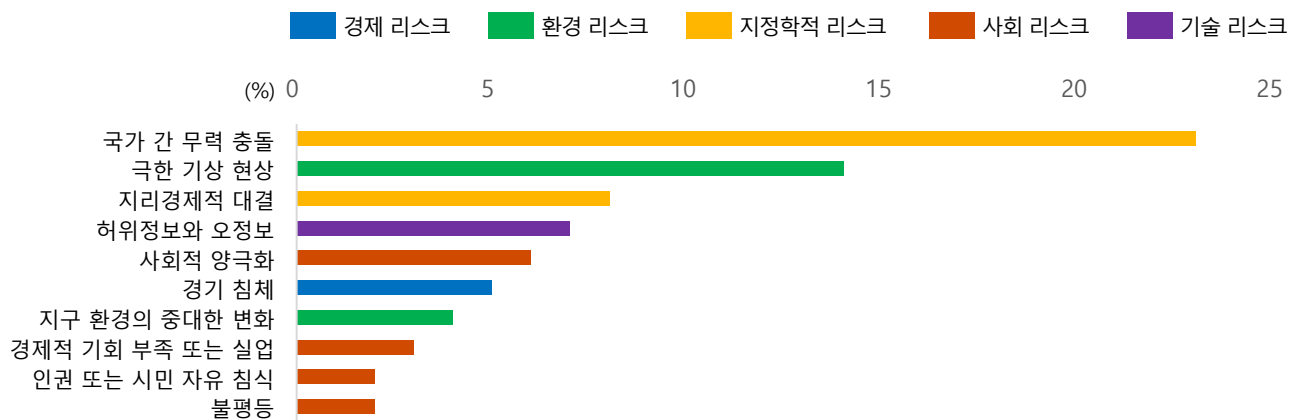
2. 글로벌 리스크 현황

(1) 현재의 글로벌 위기 요인

■ 1위는 국가 간 무력 충돌, 2위는 극한 기상 현상, 4위는 허위정보와 오정보

-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 간 무력 충돌(대리 전쟁, 내전, 쿠데타, 테러리즘 등)을 2025년의 리스크 1위로 선택(24년 8위)
-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및 수단 전쟁 영향에 기인
- **환경 리스크:**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14%)이 2위
- 해당 사례: 아시아 일부 지역 폭염, 인도네시아 및 유럽 일부 지역 홍수, 캐나다 산불, 미국 허리케인 등
- **기술 리스크:** 허위 정보 및 오정보 확산(7%)이 4위

현재 기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상위 10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 연령별 리스크 인식: 경제 침체와 경제적 기회 부족 및 실업 문제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 비관적으로 인식

- **경제 리스크:** 경기 침체(5%)가 6위로, 해당 리스크 취약성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비관적으로 인식됨
- **사회 리스크:** 상위 10위권 내 5개가 이 범주에 속함
- 경제 기회 부족과 실업 문제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 큰 위기로 인식
- 5위 사회적 양극화(6%), 8위 경제적 기회 부족 및 실업(3%), 9위 인권 및 시민 자유 억압(2%), 10위 불평등(2%)

연령대별 현재의 글로벌 위기 요인 인식 순위

순위	<30	30-39	40-49	50-59	60-69	70+
1위	극한 기상 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	국가 간 무력 충돌	국가 간 무력 충돌	국가 간 무력 충돌	국가 간 무력 충돌
2위	국가 간 무력 충돌	극한 기상 현상	극한 기상 현상	극한 기상 현상	극한 기상 현상	극한 기상 현상
3위	경기 침체	지리경제적 대립	지리경제적 대립	지리경제적 대립	지구 환경 중대 변화	사회적 양극화
4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경기 침체	허위정보와 오정보	사회적 양극화	지리경제적 대립	지리경제적 대립
5위	사회적 양극화	허위정보와 오정보	경기 침체	허위정보와 오정보	허위정보와 오정보	지구 환경 중대 변화
6위	인권 및 자유 억압	불법경제활동, 범죄	사회적 양극화	지구 환경 중대 변화	사회적 양극화	허위정보와 오정보
7위	AI 기술의 폐해	지구 환경 중대 변화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경기 침체	불평등	AI 기술의 폐해
8위	지리경제적 대립	주요 공급망 붕괴	전략적 자산 집중	부채	비자발적 이주, 추방	자산 버블 붕괴
9위	경제기회부족, 실업	비자발적 이주, 추방	지구 환경 중대 변화	생태계 붕괴	생화학 및 핵 위험	생태계 붕괴
10위	자연 자원 부족	경제기회부족, 실업	경제기회부족, 실업	중대 인프라의 붕괴	사이버 스파이, 전쟁	생화학 및 핵 위험
11위	자산 버블 붕괴	전략적 자산 집중	AI 기술의 폐해	인권 및 자유 억압	경기 침체	전략적 자산 집중
12위	건강, 웰빙 감소	인플레이션	인권 및 자유 억압	불평등	인권 및 자유 억압	중대 인프라 붕괴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3. 글로벌 리스크 단기 전망(~2027년)

(1) 향후 2년 간의 세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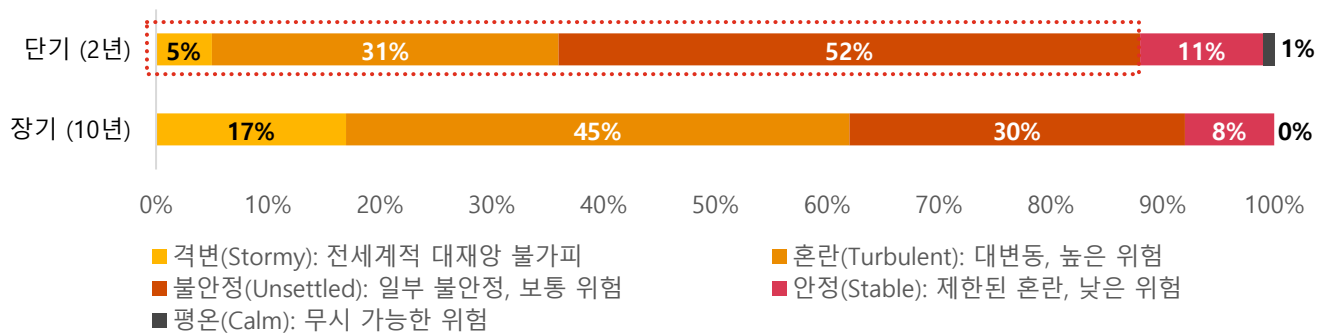
■ 낙관론이 약화된 모습

- '25년 들어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분야 전반에서 점차 분열된 세계 전망이 나타남
- 향후 2년 간의 단기 전망도 GRPS 결과 기준으로 비관론 우세. 부정적인 세계 전망(불안정, 혼란, 격변) 인식 비중이 88%

■ 지정학·사회 리스크 심화, 경제 리스크 심각도 완화

- 향후 2년 간의 중대 리스크 1위는 허위 정보와 오정보, 2위는 극한 기상 현상

글로벌 단기(2년) 및 장기(10년) 전망 인식 조사 결과: 비관론 우세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2) 단기 글로벌 위기 요인

■ 기술 리스크

- 허위 정보와 오정보가 리스크 순위 1위로 '22~'23 GRPS 리스크 목록에 최초로 추가된 이후 2년 연속 1위 차지
- AI와 인간이 생성한 허위 정보 식별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형태로 허위 정보 확산이 가능해짐
- 사이버 스파이 활동 및 전쟁에 대한 우려도 5위에 오름

■ 환경 리스크

- 극한 기상 현상이 2위, 환경 오염 리스크는 6위('24년 10위) 기록
- 장기 위험의 범주에 머물던 환경 리스크가 단기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

■ 지정학적 리스크

- 전년 대비 순위 상승폭 큰 부문. 국가 간 무력 충돌은 작년 5위에서 올해 3위로 상승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정,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상
- 국가 간 무력충돌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전망

■ 사회 리스크

- 리스크 심각도 측면에서 사회적 리스크가 상위 10위권에 4개 포함. 사회적 양극화 4위, 불평등 7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이 8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의 억압이 10위
- 불평등은 글로벌 리스크 연결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리스크와의 연관성, 유발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 경제 리스크

-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에도 작년 대비 리스크 순위 하락. 올해 상위 10위권에 경제 리스크 불포함
- 인플레이션('24년 7위 → '25년 29위)과 경기침체('24년 9위 → '25년 19위) 리스크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 부채 위험('24년 16위 → '25년 '15위)은 전년 대비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며,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죄 리스크('24년 28위 → '25년 11위)는 전년 대비 심각도가 높게 평가됨

3. 글로벌 리스크 단기 전망(~2027년)

글로벌 리스크 단기 전망(~2027년) 조사 결과: 부문별 리스크 심각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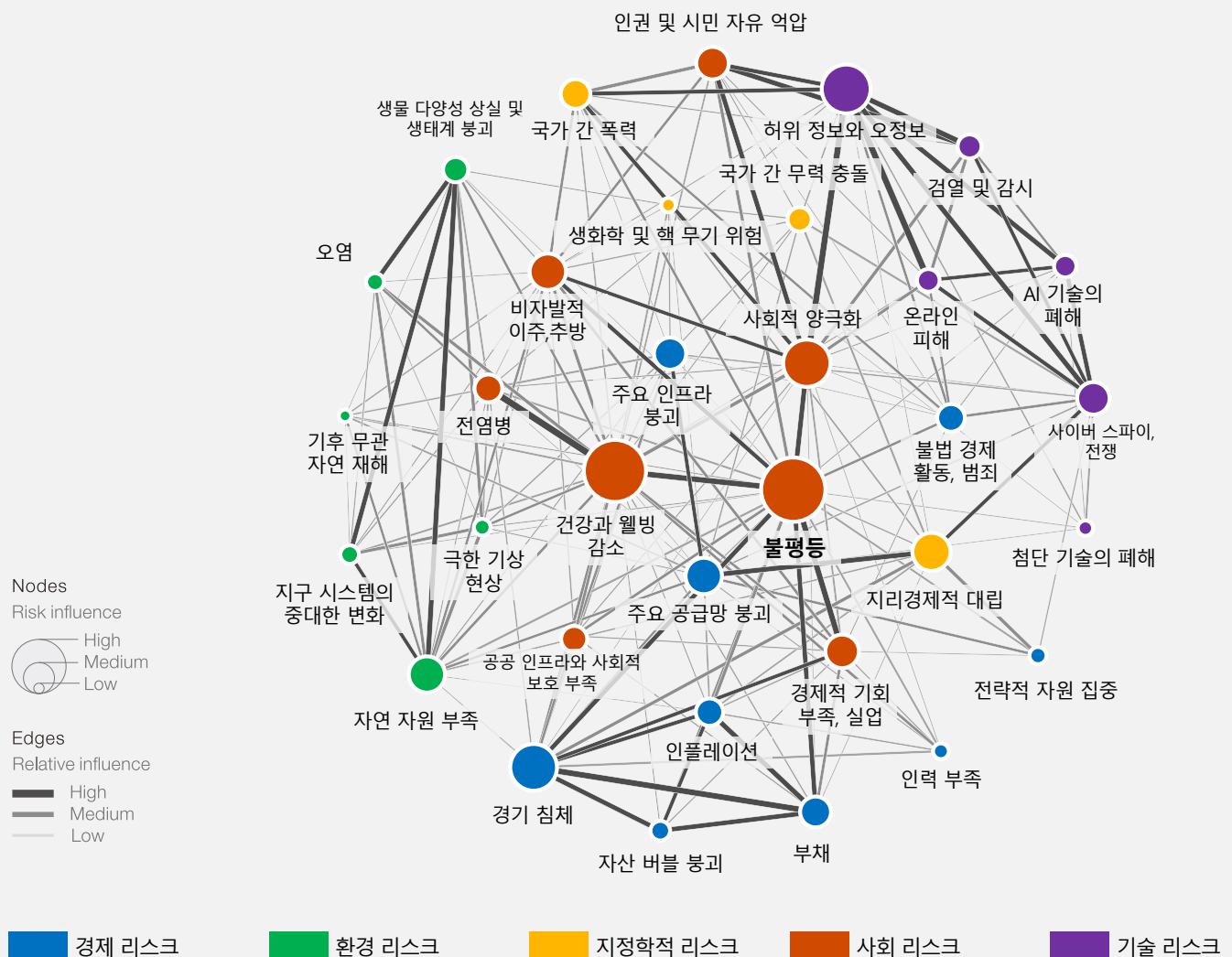
단기(2년) 글로벌 리스크 요인

1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6위	오염
2위	극한 기상 현상	7위	불평등
3위	국가 간 무력 충돌	8위	비자발적 이주 또는 추방
4위	사회적 양극화	9위	지리경제적 대립
5위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10위	인권 또는 시민 자유 억압

■ 경제 리스크
 ■ 환경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 사회 리스크
 ■ 기술 리스크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글로벌 리스크 연결 지도: 중심에는 불평등(Inequality)이 존재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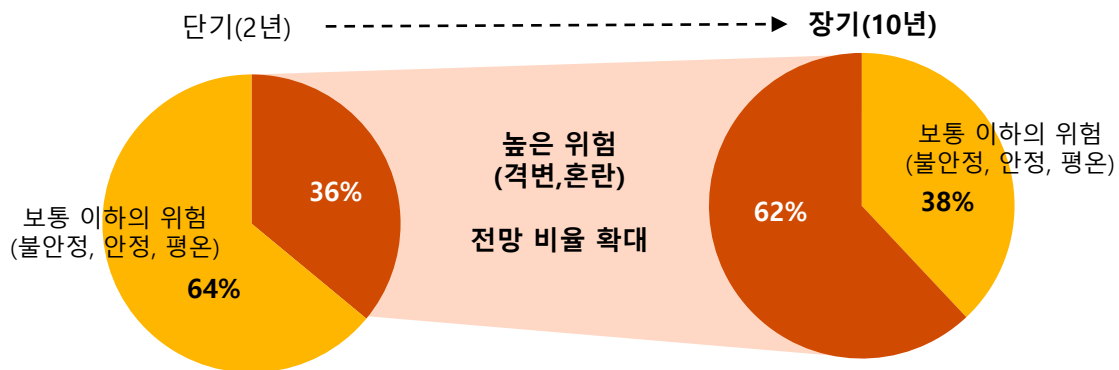
4. 글로벌 리스크 장기 전망(~2035년)

(1) 향후 10년 간의 세계 전망

■ 장기 전망은 단기 대비 보다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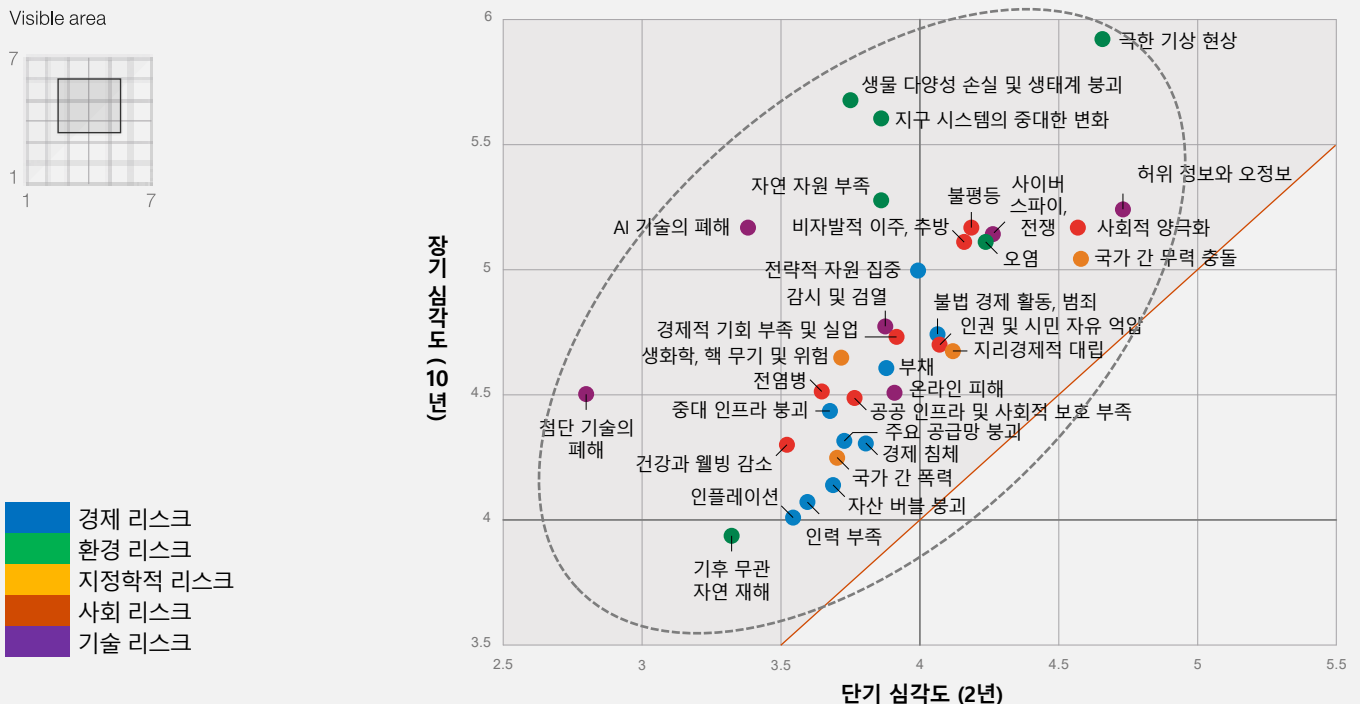
- GRPS 조사 결과, 장기(향후 10년) 전망은 악화되어 응답자의 62%가 격변(Stormy) 또는 혼란(Turbulent)의 시기를 예상함. 단기(2년) 전망의 경우 해당 비율은 36%로, **장기로 갈 수록 글로벌 리스크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평가됨**
-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리스크 부문 하의 총 33개 위기 요인들 모두 장기적으로 그 심각성이 높아져 향후 해당 리스크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10년) 글로벌 리스크 전망은 단기(2년) 대비 악화될 것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글로벌 리스크 심각도 비교: 장기(10년) vs. 단기(2년)



리스크 심각도 평가 기준: 1점 = 낮은 심각도, 7점 = 높은 심각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4. 글로벌 리스크 장기 전망(~2035년)

(2) 장기 글로벌 위기 요인

■ 향후 10년 내 직면할 위기 심각도: 환경 리스크가 압도적 > 기술, 사회 > 경제, 지정학

■ 환경 리스크

- 글로벌 장기 리스크 10위권에서 1~4위, 10위 5개가 모두 환경적 리스크일 정도로 가장 우려되는 부문
- 1위 극한 기상 현상, 2위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3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4위 천연 자원 부족, 10위 환경 오염

■ 기술 리스크

- 글로벌 장기 리스크 10위권 내에서 5위, 6위, 9위가 기술적 리스크에 포함되어 환경과 함께 리스크 심각도가 높게 평가됨
- 5위 허위정보와 오정보, 6위 AI 기술의 폐해, 9위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전쟁. 이 중 AI 기술 파생 리스크는 단기 대비 장기 심각성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 리스크

- 불평등(부, 소득)은 7위, 사회적 양극화 8위
- 일본, 한국,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불리한 인구 통계적 추세가 향후 10년간 사회적 리스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금 위기와 장기 요양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경제 리스크

- 장기 리스크 10위권에 경제 부문 리스크는 포함되지 않았음. 전년 대비로도 안정적이거나,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인 불법 경제 활동 및 범치는 작년 31위에서 올해 15위로 상승함
- 다만, 경제적 리스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경제 위기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지정학적 리스크

- 장기 리스크 10위권에는 불포함
- 국가 기반 무력 충돌은 작년 15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 생화학 무기 리스크는 26위에서 19위로 상승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에게는 국가 기반 무력 충돌 리스크가 3위로 꼽히며 장기적인 위협으로 인식됨

글로벌 리스크 장기 전망(~2035년) 조사 결과: 부문별 리스크 심각도 순위

장기(10년) 글로벌 리스크 요인

1위	극한 기상 현상	6위	AI 기술의 폐해
2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7위	불평등
3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8위	사회적 양극화
4위	자연 자원 고갈	9위	사이버 스파이와 전쟁
5위	허위 정보와 오정보	10위	오염

■ 경제 리스크 ■ 환경 리스크 ■ 지정학적 리스크 ■ 사회 리스크 ■ 기술 리스크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5. 부문별 주요 리스크 분석 - 단기: 지정학, 경제, 기술·양극화

(1) 부문별 단기 리스크 분석

① 지정학적 침체(Geopolitical Re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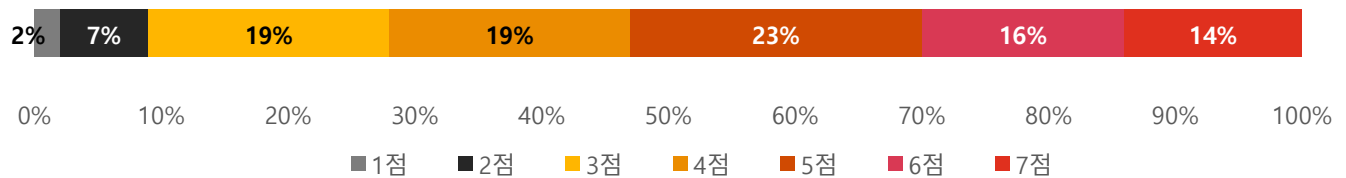
■ 향후 2년간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위험 심화 전망

- **무력 충돌 증가**
 - 국가간 또는 국가-비국가 행위자 간 무력 충돌(전쟁, 대리전, 내전, 쿠데타, 테러 등)은 '25년 주요 리스크 1위('24년 8위)
 - 지정학적 위험은 지리경제적 대립,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등의 요인과의 밀접하게 연관됨
- **국제적 협력 약화와 인도적 지원 제한**
 -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로 자국 이익 우선 정책 강화, 국제 기구 효율성 저하, 난민 문제 등 인도주의 위기 관련 지원도 약화
- **다자주의²⁾ 강화와 협력 필요**
 - 지정학적 침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 기술, 외교, 인도적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재구성해야 함

²⁾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3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

국가 간 무력 충돌: 단기(2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2년 간의 평균 리스크 심각도 점수: 4.6 (1점 = 낮은 심각도, 7점 = 높은 심각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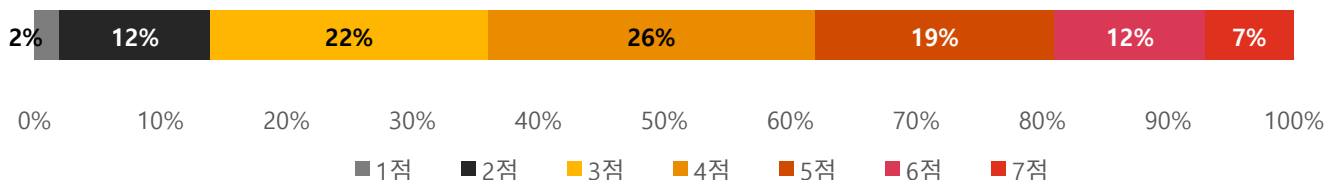
② 경제적 긴장 고조(Supercharged Economic Tensions)

■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위험 인식은 약화된 반면, 국제 무역 갈등은 심화될 전망

- **지리경제적 대립 심화**
 - 글로벌 무역 관계 긴장 및 무역 정책 변동성 확대로, 지리경제적 대립은 단기(2년) 기준 리스크 9위에 오름(현재 기준은 3위)
- **미-중 무역 전쟁**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과 발표
 - 이러한 관세 기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며 국제 무역 축소 우려 확대
 - 무역 전쟁 확대 시 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협력 난항 및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

지리경제적 대립: 단기(2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2년 간의 평균 리스크 심각도 점수: 4.1 (1점 = 낮은 심각도, 7점 = 높은 심각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5. 부문별 주요 리스크 분석 - 단기: 지정학, 경제, 기술·양극화

③ 기술과 양극화(Technology and Polarization)

■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달 → 기술 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 리스크도 확대

• AI에서 파생된 허위 정보와 오정보

- 향후 2년간 AI 생성 콘텐츠 급증하며 허위 정보와 오정보 확산 리스크가 심화될 전망
- AI 기술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대량 허위 정보를 저비용으로 배포할 수 있게 함
-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선거, 공공 여론, 소비자 신뢰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

• 알고리즘 편향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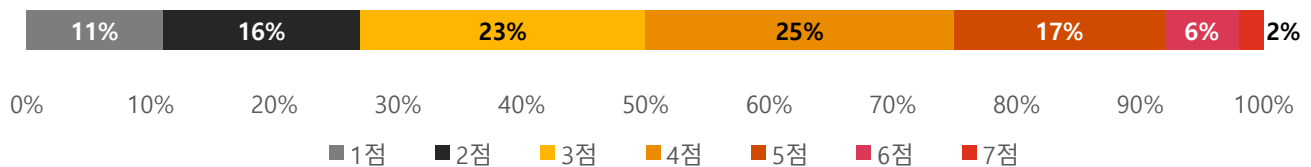
- AI 기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
- 정치적 극단화와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 초래 가능,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 디지털 감시 강화로 시민 자유 억압 우려

- CCTV, 생체 인식 기술, 위치 추적 장치 등이 보편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됨.
- 이는 시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 있음

사회적 양극화: 단기(2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2년 간의 평균 리스크 심각도 점수: 4.6 (1점 = 낮은 심각도, 7점 = 높은 심각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2) 주요 단기 리스크 요약 및 대응 방안

■ 지정학적 갈등 증가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강화로 글로벌 분열 심화

■ 다자주의 기구 지원, 다자간 무역 강화, 상호보완적 무역관계 조성을 위한 협력, AI기술 관련 교육과 규제 마련 등이 필요

3가지 단기 위기 요인 요약과 대응방안

3대 단기 위기 요인	해결 방안
1. 지정학적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무력 충돌 증가 • 국제적 협력 약화와 인도적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주의 기구 지원 • 지역 기구 긴장 관리 역할 확대 • 공급망 다각화
2. 경제적 긴장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기반 보호무역주의 확대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주의 무역 강화 • 상호보완적, 전략적 무역 관계 개발 및 협정 고려 • 국내 경제 회복력 강화
3. 기술과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허위 정보 확대 • 알고리즘 편향으로 양극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 편향성 축소 기술 향상 및 적용 • 관련 교육 지원 확대 • AI 투명성, 책임 체계 개선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5. 부문별 주요 리스크 분석 - 장기: 환경, 생명공학, 초고령화

(3) 부문별 장기 리스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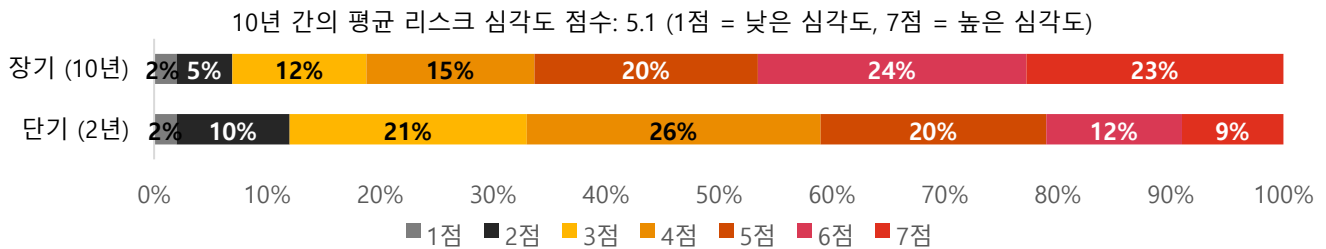
① 환경 오염(Pollution at a Crossroads)

■ 환경 오염 물질 증가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인류 건강 위협, 생태계 붕괴를 초래

- **향후 10년 간 중대 위기:** GRPS 응답자의 23%가 환경 오염을 장기 리스크 심각도 7점 만점 중 7점의 중대 위기로 선택
- 인류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은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³⁾, 즉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 가속화 및 인류 건강 위협:** 대기 중 슈퍼 오염 물질로 불리는 흑탄, 메탄과 같은 단기 기후 오염 물질은 지구 온난화의 최대 45%를 초래하며, 어린이, 임산부, 만성 질환자, 노인 등 취약 계층에 심각한 건강 위험을 유발함
- **생태계 붕괴:**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은 생태계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가속화할 전망
- **오염의 불평등한 영향**
- 전세계 오염 관련 사망자의 92%와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대부분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

³⁾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 UN에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상호 연결된 위기 설명을 위해 도입한 용어

환경 오염: 장기(10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vs. 단기(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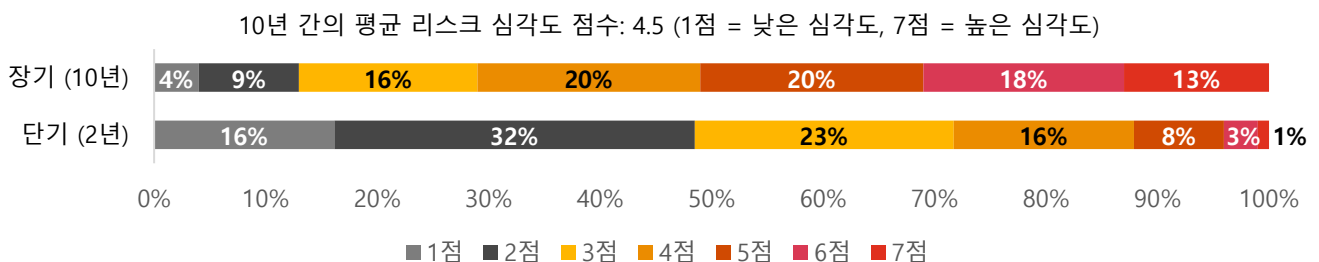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생명공학 기술 통제력 상실(Losing Control of Biotech)

■ 생명공학 기술 관련 위험 심각도는 현재 낮게 평가되나, 향후 10년 이내 크게 부각될 전망

- GRPS 결과, 생명공학 포함 첨단 기술의 폐해 리스크 순위는 단기(2년) 기준으로는 낮지만(33위), 장기(10년)로는 23위 차지
- **생물학적 무기 개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팬데믹을 초래하거나 표적화된 생물학 공격에 사용 가능
- **건강 관련 부작용:** 질병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상적 합병증이나 예상치 못한 장기적 부작용 동반 가능
- **윤리적 딜레마:**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적 갈등 초래

첨단 기술의 폐해: 장기(10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vs. 단기(2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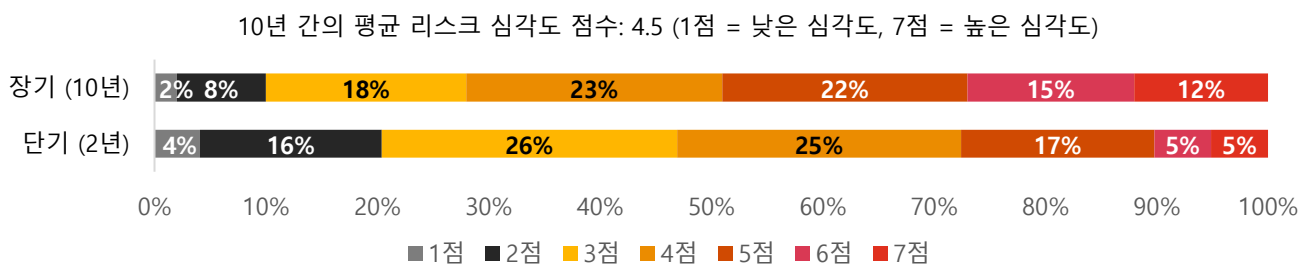
5. 부문별 주요 리스크 분석 - 장기: 환경, 생명공학, 초고령화

③ 초고령화 사회(Super-ageing Societies)

■ 2035년까지 초고령화 도달 국가 증가 전망, 노동력 부족, 연금 위기 등 불가피

- GRPS 결과,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보호 부족은 단기(2년)와 장기(10년) 기준 모두 주요 위험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초고령 사회는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화 사회:** 국가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해당됨. 전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8억 5,700만명에서 2035년 12억명으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력 부족:** 장기 요양과 같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특히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연금 위기:** 노년 인구 부양비 증가, 정부 재정 한계 등으로 향후 10년 내에 연금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 높음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보호 부족: 장기(10년) 기준 리스크 심각도 점수 vs. 단기(2년)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4) 주요 장기 리스크 요약 및 대응 방안

-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위험인 환경 오염, 생명공학 기술 통제력 상실, 초고령화에 주목
- 상기 위기 요인 관리를 위한 규제안 마련 및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

3가지 장기 위기 요인과 대응 방안

3대 장기 위기 요인		해결 방안
1. 환경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 물질 증가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 인류 건강 위협 생태계 붕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선 오염 규제 강화 오염 예방 자금 확보
2. 생명공학 기술 통제력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등 생물학적 무기 개발 건강 관련 부작용 윤리적 딜레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감독 기구 설립 및 기준 마련 생명공학 관련 교육 및 리더십 활동 강화
3. 초고령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령화 도달 국가 증가 전망 장기 요양 부문 등 노동력 부족 연금 위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 정책 유연화 은퇴 전 건강 개선 캠페인 활성화 세대 간 결속력 구축

Source: WEF, 삼일PwC경영연구원

시사점 및 제언

글로벌 주요 위기 요인과 대응 방안 제언

전략적 무역 관계 다각화와 공급망 재구축

분열하는 세계: 무역 충돌, 무역 전쟁 위험 확대

- 지정학적 갈등(러-우 전쟁, 중동 전쟁, 대만 리스크)과 글로벌 무역 갈등(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적으로 직면한 중대 위기 요인

전략적 무역 관계 개발 및 다각화 필요

- 미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통상정책 하에서 한국의 경우 재조정된 공급망 즉, 신흥국을 통한 원료 조달이 제한될 위험을 점검하고 대안 확보 측면에서 무역 관계 다각화 추진 필요
- 상호보완적 효과가 발생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 다자간 협정 수립 확대 또한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 가능

공급망 재구축 필요성 재인지 필요

- 국내 기업의 경우 격변의 시기에 상리 리스크를 기회로 인식하고 공급망 재구축 필요성 재인지해야 함
- 신규 공급업체, 부지, 인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함께 추진
- 디지털 공급망 투자 확대와 ESG를 가치 창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신규 수입원 개발 및 시장 내 전략적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

AI 투자 및 지원 확대 - 책임 있는 AI 강화 병행

한국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정부 지원책 확대 필요

- 글로벌 신성장 동력으로서 AI 기술 개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
- 한국의 AI 하드웨어 경쟁력 우수한 반면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 경쟁력은 상대적 열위
- 미국의 AI 규제 축소와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AI 기업 제후를 통한 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것

책임 있는 AI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AI 기술 발달로 인한 부작용(허위정보와 오정보 확산,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양극화 등), 사이버 스파이 및 전쟁 위험 등 글로벌 위기 요인 부상
- AI 발달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책임있는 AI 강화와 관련 지원 활성화 필요
-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책 개편 진행, 사용자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 필요
- AI 서비스 제공업체 모니터링, 관련 규제 현황 업데이트, 자동화된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등도 유효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개편

환경 리스크 축소는 인류의 중장기적 과제

-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인류 건강 위협, 생태계 붕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은 전세계 중대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

친환경적·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개편·조정 필요

- 해당 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개편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 방향으로 보았을 때 역행하기 어려운 흐름
- 다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확대 등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로 구조 개편 속도 저하 우려
- 한국의 경우, 2차 전지 등 친환경 산업 부문과 석유화학과 원자력 부문 모두 구조조정과 재정비의 시간을 획득한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초고령화, 양극화 대비 인력 관리 강화

전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전망

- 초고령화로 인한 장기 요양 부문 포함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 위기 부상할 전망
- 고령층을 포함하여 경제적 기회 부족 및 실업, 사회적 불평등, 기술 이해력 및 접근성 차이 등이 경제·사회·기술적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교육과 활용 필요

- 신기술 적용을 통한 저변 확대(AI 등 첨단 기술 및 자동화 활용), 근무 정책 유연화, 고령층과 여성 인력 활용·관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uthor Contacts

이 희 정 수석연구위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heuijung.lee@pwc.com

강 서 은 책임연구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seoeun.kang@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 재 영 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2W-RP-026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